암모니아 누출 사고 안정화… 위험물질 사고 반복

당시 농도 기준치 40배… 제주에 전문 장비 없어
위험물질 사고 5년간 19건 발생·16명 인명피해도

제주에서 발생한 암모니아 가스 누출 사고가 닷새 만에 안정화 단계에 들어갔다. 도내에서는 지난해 냉동창고 암모니아 누출로 1명이 숨진 데 이어 올해도 관련 사고가 잇따르는 등 위험물질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

5일 서귀포시와 제주도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서귀포시 서귀포항 인근 한 수산물업체 냉동창고에서 암모니아 가스가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지만, 악취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불편이 이어졌다.

사고 직후 서귀포시는 서귀포소방서, 한국가스안전공사, 영산강유역환경청, 자치경찰단 등 유관기관과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현장통합지원본부를 설치해 대응에 나섰다.

정확한 암모니아 가스 누출량은 파악되지 않았지만 사고 당시 건물 내부에서 측정된 암모니아 농도는 990ppm으로 기준치(25ppm)의 약 40배에 달했다.

시는 지난 1일과 2일 안전문자를 보내 안전 조치 상황을 알리고 이 일대 차량·출입 통제와 야외활동 자제를 당부했다. 실제 사고에 따른 우려로 일시 대피를 희망한 인근 주민은 17가구 43명으로, 시는 이들에게 임시대피시설과 숙박·급식비 등을 지원하고 있는 상태다.

현장 수습이 계속 이어진 것은 누출된 암모니아 가스를 처리할 전문 장비가 도내에 없었기 때문이다. 가스를 흡수·제거할 수 있는 전용 차량을 타 지역에서 들여와야 했다. 해당 차량은 지난 3일 제주에 도착해 전문 처리업체와 함께 현장에 투입돼 가스저장탱크와 배관에 남아 있던 잔류 가스 포집·제거 작업을 마무리해 추가 누출 위험요인을 차단했다. 이후 가스 농도를 지속적으로 측정한 결과 1~5ppm 수준으로 낮아져 안정화된 것으로 확인됐다.

도내 암모니아 누출 사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2월 제주시의 한 냉동창고에서도 암모니아 가스가 누출돼 70대 남성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가스 농도는 200ppm 이상으로 측정됐다.

올해 8월에는 제주시의 한 호텔에서 '객실에서 가스 냄새가 난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출동한 소방당국이 확인한 결과 소형 냉장고에서 암모니아 가스가 누출된 것으로 파악됐으며 측정 농도는 99ppm이었고 소방당국은 안전조치를 했다.

암모니아를 포함한 위험물질 사고도 이어지고 있다. 도내에서 발생한 위험물질 사고는 2022년 5건, 2024년 5건, 2025년 4건 등 최근 4년간 14건이다. 올해 들어서도 5건이 발생했다. 이들 사고로 2022년 12명, 2025년 4명 등 16명의 인명피해가 난 것으로 집계됐다.

제주도소방안전본부 관계자는 "암모니아 가스 누출 상황을 가정한 민·관 합동대응훈련을 실시해왔다"며 "유해가스 누출에 따른 대형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 민관 협업을 통한 초기 대응 능력 강화 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박소정기자

구조 않고 현장 떠난 운반선 선장 징역 2년

재판부 "죄책 무거워"

제주해상에서 발생한 '금성호 침몰 사고' 당시 구조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같은 선단의 운반선 선장에게 징역형이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서범욱 부장판사)는 5일 선원법 위반과 유기·유기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70대 A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앞서 지난 2024년 11월 8일 비양도 북서쪽 약 22㎞ 해상에서 129t 대형선망어선 135금성호가 전복돼 침몰했다. 이 사고로 승선원 27명(한국인 16명, 인도네시아인 11명) 가운데 5명이 숨지고 9명이 실종됐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금성호와 같은 선단의 운반선 선장으로, 당시 금성호가 전복됐다는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인명구조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해 선원 중 25명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법률상 보호의무가 인정되고 증거 등을 보면 유기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며 "다수의 선원들이 조난 당한 사실을 알았음에도 아무런 구조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이탈해 죄책이 무겁다"며 선원법 위반과 유기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박소정기자

제주대 '4·3기념비' 환영 잇따라

학생들 자발적 모금 조성

제주대학교 학생들이 4·3을 기억하고 추모하는 기념비를 세운다. 학생들의 자발적 모금을 통해 올해 안에 학내에 건립할 '제주4·3정신계승기념비: 평화와 기억의 자리'이다.

5일 제주대학교 총학생회에 따르면 1985년 4월 제정된 제주대 총학생회칙 전문은 "4·3의 후예 제주대학교 총학생회는…"이란 문장으로 시작한다. 그러나 41년이 지난 지금까지 교내에는 4·3을 기억하고 추모할 공간이 없어 기념비 건립을 추진하게 됐다.

이번 사업은 총학생회가 지난 8월 중앙운영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해 의결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모든 단과대학 학생회가 참여하면서 대학생 전체가 함께하는 사업으로 확대됐다.

기념비는 제주대학교 체육관 옆 동백정원 중앙부에 높이 약 1.5m, 면적 약 2m의 상징조형물로 세워진다. 또 여기에 한국어·영어·일본어·중국어 등 4개 국어 비문과 디지털 아카이브 큐알(QR)코드를 결합한다.

기념비는 대학 예산 지원 없이 학생을 비롯해 학내 구성원, 도민의 자발적인 모금과 후원금으로 조성한다. 모금은 이달 30일까지 진행되며 12월 중 제막할 예정이다.

양유준 총학생회장은 "2021년 4·3 특별법 전부개정 이후의 4·3은 제주의 청년들이 직접 고민하고 이끌어가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연내 제주4·3정신계승기념비 건립을 통해 역사 왜곡에 맞서 과거와 현재, 미래를 잇는 가교 역할을 우리 제주대학교 학생들이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제주 4·3 관련 단체들은 전날 성명을 내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제주4·3희생자유족회는 "역사의 진실을 바르게 세우고 평화의 가치를 실천하려는 제주대학교 총학생회와 재학생 모두의 순수하고 정의에 찬 걸음에 깊은 감사를 표한다"며 "성공적인 제막에 이르기까지 격려하고 끝까지 함께 연대할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 청년위원회도 "생존 희생자와 1세대 유족이 고령화되면서 4·3의 기억을 다음 세대로 어떻게 잇느냐는 이제 가장 절박한 과제가 됐다. 4·3의 세대 전승 주체로서 청년이 스스로 일어선 기반이자 앞으로도 계속 서 있을 수 있는 원동력으로서 작용할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소정기자 cosorong@ihalla.com

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협박 경찰, 20대 구속 공소청 송치

미성년자들을 속여 다수의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협박한 20대가 공소청에 넘겨졌다.

제주동부경찰서는 강제 추행과 성 착취물 제작·협박 등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뒤 기프티콘 등 금전을 제공하고 성적인 영상과 사진 등을 받은 혐의다.

또 자신을 중학생이라고 속여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강제추행한 혐의도 받는다.

A씨가 성 착취물을 빌미로 피해자들을 협박한 사실도 확인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의 휴대전화에서는 100여 개의 성 착취물이 발견됐다. 다만 유포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피해 미성년자는 제주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발생했으며, 초등학생을 포함해 총 8명으로 파악됐다.

양유리기자 glassy38@ihalla.com



5일 민주노총 제주본부 서비스연맹 관광레저산업노조 드림타워카지노지부는 기자회견을 열고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3차 파업을 예고했다. 양유리기자

"노동자 인권 외면 맞서 3차 파업 준비"

드림타워카지노노조 기자회견

제주 드림타워카지노 노동자들이 처우개선과 노동자 보호를 요구하며 3차 파업을 예고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 서비스연맹 관광레저산업노조 드림타워카지노지부는 5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의 인권을 외면하는 드림타워카지노에서 맞서 3차 파업을 준비한다"고 말했다.

노조는 "현장에서 고객의 흡연, 폭언, 폭행, 성희롱 피해 호소가 이어지고 있다"며 "고객의 국적, 이용금액에 관계없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은 보호돼야 한다. 고객중심 운영이 노동자에게 무조건 참으라는 요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흡연 과태료 부과만으로 간접흡연 노출을 막을 수 없고, 피해 노동자 혼자 증거를 확보하고 신고하도록 해서는 문제 해결이 어렵다"며 "사업자가 즉시 문제행동을 제지하고, 피해자 분리, 증거보전과 신고를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위 같은 노동자 보호조항을 담아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개정을 요구했다.

양유리기자 glassy38@ihalla.com

제주 최초
청각학 박사 학위 취득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이학박사(청각학)
원장 강 동 우
• 대구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교수
• 전문청능사 언어재활사
• 한국청능사협회 상임이사
• 한국청각언어재활학회 운영이사
• 한국언어재활사협회 정회원
와이덱스 보청기
강동우 청각센터
청각학 박사가 직접 상담하는 청각전문센터
정확한 진단과 섬세한 관리로
더 잘 듣고, 더 편안한 일상을 함께합니다.
개인마다 다른 청력 상태와 생활환경을 고려한 정확한 평가와 맞춤 상담,
체계적인 사후관리로 여러분의 소중한 청력을 지켜드립니다.
청력 평가 난청 상담 보청기 상담 청능재활 지속적인 사후관리
강동우청각센터의 차별성
청각학 박사 직접 상담
체계적인 피팅 및 관리 시스템
최신 청력평가 장비 운영
지속적인 사후관리와 신뢰
개인별 청취환경 분석
검증된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
제주시청 제주대 와이덱스 보청기 CGV 화북 광양사거리 무료주차 가능
제주시청 광양사거리 다이소 옆
청각의 가치를 높여 더 나은 삶을 함께합니다
제주시 동광로 4, 삼옥빌딩 3층 (제주시청 광양사거리 위치)
상담예약 064. 755. 1005
홈페이지 자세히 보기
hearingjeju.com